순천만정원~순천만 4.6㎞ 무인 궤도열차 달린다

국내 최초… 정원 재개장 맞춰 20일 개통

순천 에코트랜스, '스카이 큐브' 40대 운영

20일 순천만 정원 재개장에 맞춰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구간(총 4.64㎞)에 무인 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사진)가 운행된다.

순천시는 " 포스코와 순천시의 민간투자 협약으로 설립된 ㈜순천 에코트랜스가 국내 최초로 소형 무인 궤도 열차인 '스카이 큐브(SkyCube)'를 순천만 정원 개장일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스카이 큐브'는 국내 최초 소형 무인 궤도열차의 새로운 이름이다.

모두 40대의 차량으로 운영하는 '스카이 큐브'의 운행 구간은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총 4.64㎞로, 소요시간은 왕복 15분이다.

승객들은 26.5㎢의 갯벌과 5.6㎢의 갈대 군락지에 120종이 넘는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해마다 235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스카이 큐브'는 배차 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의 철도와 달리 승객의 요청에 따라 배차해 목적지까지 무정차 운행을 하게 된다. 차량의 정원은 6~9명으로 승객의 선택에 따라 혼자 또는 단체로 탈 수 있다.

순천시와 순천 에코트랜스 측은 '스카이 큐브'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교통 시스템이어서 5대 연안 습지이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습지 특유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 에코트랜스 측은 "PRT가 철도의 정시성과 안전성에 자동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 큐브'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벌인 소음과 진동을 비롯한 안전 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 7명이 나서 궤도 안전 등 구조와 시스템을 검토한 정밀 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기형 순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소형 무인 궤도열차 운행으로 녹색에너지 교통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예정열 기자 yjy@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신안, TF·조례 제정

신안군이 '염전 노예' 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신안군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했다.

장애인 인권센터 소속원 등 민간인 6명과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된 TF는

장애인 인권 침해 보호대책을 수립해 장애인 일시보호, 일자리 알선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시설입소 희망 등록 장애인은 입소시키고, 직업능력이 있는 등록 장애인은 직업훈련후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직업 재활시설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신안 염전 종사인원 375명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로 의심되는 32명(장애의심 19명, 지적장애 8명, 뇌병변장애 1명, 시각장애 2명, 청각장애 1명, 기타 1명)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다. 장애의심 19명은 장애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염전이 있는 지역에는 인권 전문요원과 경찰 합동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속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비의 바닷길 축제' 외국인 북적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3월 30~4월 2일) 행사장을 찾아 새벽에 횃불을 들고 갈라진 고군면 회동~의신면 모도 사이 바닷길을 걷고 있다. 진도군은 축제 기간동안 외국인 8만 2000명 등 모두 58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진도군 제공〉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2016년 개교 전망

市, 메이플립 교육재단과 협약 변경 체결

오는 2016년 3월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가 개교할 전망이다.

순천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메이플립 교육재단과 당초 협약사항을 변경해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올 4월 개교 예정이었던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는 신대지구 준공지연에 따른 부지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11월 메이플립 재단에서 학교법인을 통한 외국인학교 설립의사를 밝혀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와 재단간 재협약이 탄력을 받았다.

당초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한 해 입학가능하며,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에서 부모없이 단독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그만큼 학생모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 협약이 체결되면 학교설립 주체가 메이플립 재단 이사장 개인에서 메이플립 교육재단이 국내에 설립하는 학교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협약을 변경해 다시 체결해야하는 만큼 메이플립 교육재단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와 최종적인 내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생모집여건이 당초보다 나아져 개교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주말 나들이

'봄의 전령' 매화와 산수유가 지기 무섭게 벚꽃, 진달래, 유채 등 온갖 봄꽃들이 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다퉈 피고 있다.

도내에서 봄꽃을 테마로 ▲2014 영암 왕인문화축제(4~7일·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목포 유달산꽃축제(5~6일·목포 유달산 일원) ▲섬진강변 벚꽃축제(5~6일·구례군 문척면 섬진강변) 등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서는 1일부터 한달간 '느림은 행복이다'란 주제로 슬로걷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1호'를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 들녘으로 가족들과 함께 꽃 나들이를 떠나보자!

영취산 진달래 축제 (4~6일·여수 영취산 일원)

영취산은 전국 진달래 3대 군락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축제가 치러지는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산행코스는 ▲중흥동 GS칼텍스 공장 후문~정상(2.2㎞ 구간) ▲상암 초교~정상(1.8㎞ 구간) ▲흥국사~정상(1.4㎞ 구간) 등 3개 구간이다.

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사장 주변에 대해 주차 통제를 실시한다. 돌고개, GS칼텍스 남문, 흥국사·중흥, 상암지역, 원상암 등 5개소에는 3000면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됐다.

시내에서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투입된다.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여수시청↔여천역↔중흥↔돌고개를 순회하는 버스 2대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둔덕↔상암↔돌고개↔흥국사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1대가 운영된다.

자가용 이용시 내비게이션 주소입력창에 ▲여수시 월내동 547(여수산단 방향) ▲여수시 흥국사길 134-9(흥국사 방향) ▲여수시 상암동 1691(상암초교 방향)을 입력하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문의(061-691-3104)

문학카페 유랑극장 (5일·목포문학관)

호남권 거점문학관인 목포문학관에서 전국 순회 문학콘서트 '문학카페 유랑극장'이 5일 열린다.

문학콘서트는 소설가 임철우 장편소설 '백년여관'을 텍스트로 삼아 서영채 문학평론가와 함께 '백년의 봄, 죄의식을 응시하다'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 사회와 '3자 토크' 프로그램은 소설가 이은선('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저자) 씨가 맡았다. 콘서트는 기존 진행방식인 문학행사와 형식·내용면에서 차별성을 뒀다.

책을 미처 읽지 못한 관람객도 작품 내용을 파악하도록 연극배우들이 직접 낭독하고 인문학자들이 해당 작품마다 테마를 정한 후 그들만의 특별한 해석을 덧붙여 강연한다. 문의(061-270-8400)

삼산동 용당 뚝방길 벚꽃축제 (5일·순천 용당 뚝방길)

'용당 뚝방길 봄맞이 벚꽃과 시민이 함께 춤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과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축제는 순천만 정원 개장 홍보 코너와 풍선 아트, 포토 존 등의 체험행사와 동민 노래 자랑, 다산 아이돌 방송댄스, 주민자치 밸리댄스 등 다양하게 꾸며진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국창 송순섭(무형 문화재) 명창의 판소리 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벚꽃을 주제로 한 어린이 벚꽃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천 행사추진위원장은 "삼산동 자생단체별로 다양한 먹거리 음식을 마련해 축제 참여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맛보고, 즐기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삼산동 주민센터(061-749-3666)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